

晩翁 徐命瑞의 「學約圖」에 구현된 학문의 과정과 체계

전병철*

-
1. 머리말
 2. 학문의 단계와 실천
 3. 道學과 經濟의 체계 설정
 4. 맺음말
-

■ 국문요약

기존 연구에서 어떤 학자가 이룩한 학문 성과에 관해서는 풍부한 결과물을 제출했지만, 그가 어떠한 독서 목록과 학업 과정에 의해 그러한 결과에 도달했는지를 추적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는 부족해 보인다. 그 까닭은 연구 대상 인물의 定論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독서 목록과 학업 과정을 상세하게 밝혀놓은 자료가 드물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晩翁 徐命瑞(1711~1795)의 「學約圖」를 대상으로 그가 설계한 독서 목록과 학업 과정을 살펴보려 한다. 서명서의 문집인 『晩翁集』 권3에는 세 개의 도설이 수록되어 있는데, 「初學畫一圖」와 「爲學之方圖」는 이전 학자들의 圖說을 수용한 것이며, 「學約圖」는 서명서의 독창적인 自作圖라고 판단된다.

그가 「학약도」를 저술한 의도가 공부하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학문 과정을 제시하려 했다고 추론되므로, 이것을 통해 18세기 조선의 학자가 구상한 이상적

*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부교수 / E-mail: wooze@gnu.ac.kr

인 학문 목표와 실천 방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學約圖』는 第一과 第二의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第一은 上·中·下의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상단은 학문의 入門과 宗旨를 설명하고 있으며, 중단은 日課의 실천과 점검에 대한 지침을 말하고 있다. 하단은 공부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할 시기별 학습 단계와 내용을 제시했다. 第二는 道學과 經濟의 두 범주로 설정되어 있다. 第一이 학문의 목표를 설정한 후 日課 및 학업 단계별 수행 과제를 제시한 것이라면, 第二는 공부하는 사람이 성취해야 할 목표와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學約圖』의 체제는 중국 明末清初의 陸世儀가 저술한 『思辨錄』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그림과 해설은 서명서의 학문적 견해에 의해 독창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시 학자들의 실정에 맞는 독서 목록과 학습 방법을 제시했다. 서명서가 영조와 정조 두 조정에서 세자를 보필하는 직책을 맡은 학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學約圖』는 일개 학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넘어 후학들에게 학문의 표준을 제시하려는 의도에서 저술된 것이라고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徐命瑞, 『晚翁集』, 『學約圖』, 陸世儀, 『思辨錄』, 독서목록, 학업과정

1. 머리말

주지하다시피 조선의 학자들은 학문을 통해 자신을 온전하게 세운 후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삶의 목표를 설정했다. 달리 말하면 明明德을 성취한 후 新民을 실현하는 삶을 꿈꾼 것이다. 그런데 新民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明明德이라는 전제 과정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야 한다. 朱熹는 『大學章句』에서 修身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집안·국가·천하 등 어디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교화하여 잘 다스릴 수 있다¹⁾고 말했다.

그렇다면 조선의 학자들은 明明德을 성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했을까? 지식의 탐구를 위해 단계별로 독서 목록을 어떻게 구성했으며, 마음과 몸을 수양하기 위해 학업 과정을 어떻게 설정했을까? 기존 연구에서는 어떤 학자가 이룩한 학문 성과에 관해서는 풍부한 결과물을 제출했지만, 그가 어떠한 독서 목록과 학업 과정에 의해 그러한 결과에 도달했는지를 추적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 그 까닭은 연구 대상 인물의 定論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독서 목록과 학업 과정을 상세하게 밝혀놓은 자료가 드물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글은 晚翁 徐命瑞(1711~1795)의 「學約圖」에 의거하여 그가 설계한 독서 목록과 학업 과정을 살펴보려 한다. 그가 「학약도」를 저술한 의도가 공부하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학문 과정을 제시하려 했다고 판단되므로, 이것을 통해 18세기 조선의 학자가 구상한 이상적인 학문 목표와 실천 방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서명서는 1773년(영조 49)에 世子翊衛司 司禦를 담당하고 1784년(정조 8)에 世子翊衛司 翊衛를 지냈으니, 세자를 보필할 만한 학문과 덕행을 가진 학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 사실로 본다면, 「학약도」는 영조와 정조의 두 조정에 걸쳐 세자를 보필한 학자가 학문의 표준을 제시한 저술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 서명서에 대한 연구는 김상호가 「학약도」 第一 下段의 독서 단계에 주목하여 그것이 중국 및 조선 학자와 어떤 영향 관계에 있으며, 구별되는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밝힌 논문이 유일하다.²⁾ 이 글에서는 독서단계를 포함하여 「학약도」의 전체 내용을 살펴볼 것이며, 이것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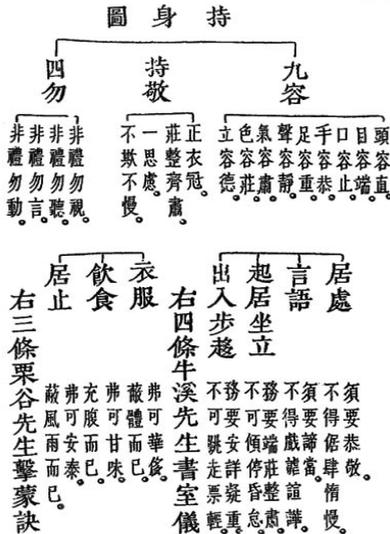
1) 『大學章句』 經一章 朱子註. “正心以上 皆所以修身也 齊家以下 則舉此而措之耳”

2) 김상호(199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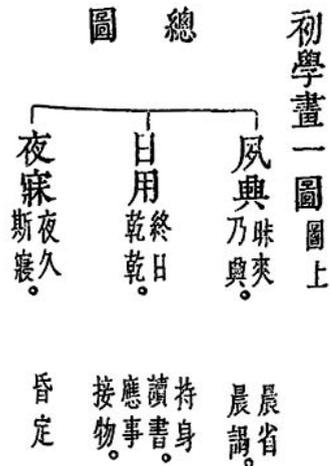
「학약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림과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관해 고찰하려 한다.

2. 학문의 단계와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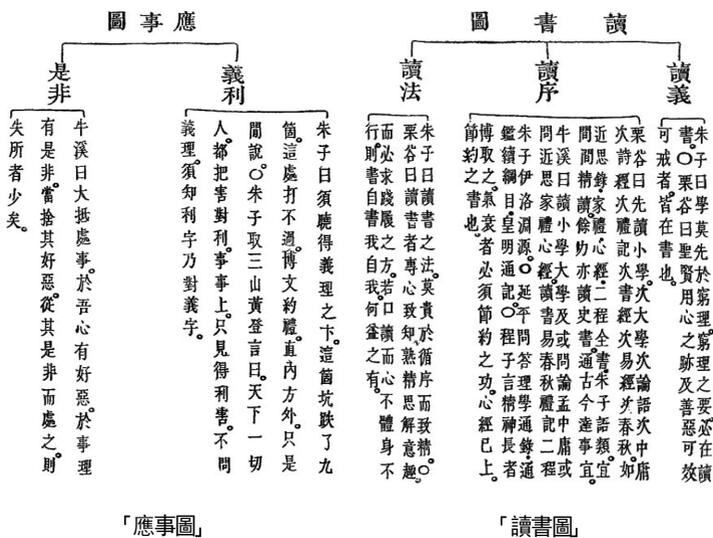
서명서의 문집인 『晚翁集』에는 「학약도」 앞에 圖上의 「初學畫一圖」와 圖下의 「爲學之方圖」가 수록되어 있다. 「초학획일도」에는 總圖·持身圖·讀書圖·應事圖·接物圖 등 다섯 가지 도설로 구성되어 있다.



「持身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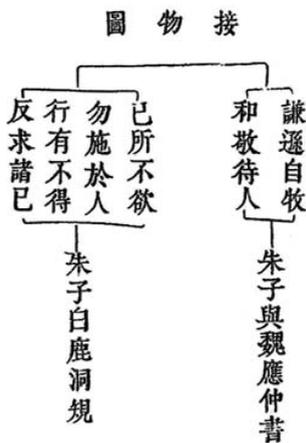


「總圖」



「應事圖」

「讀書圖」



「接物圖」

「위학지방도」는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며, 立志와 務實을 양쪽

의 축으로 세우고 持敬·講學·省察의 학문 방법을 제시했다. 도설의 왼쪽 끝에는 “학자가 이것을 배울 뿐이니,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그만둔다면 학문이 아니다.”³⁾라고 총결하며 강조했다.

그런데 그림의 제목 옆에 ‘晦菴의 편지, 退溪의 해설, 栗谷의 그림, 牛溪의 초록, 涵齋의 總圖’라는 小註가 적혀 있다. ‘회암의 편지’는 그림 아래에 주희의 「答林伯和書」·「答方畊道書」·「答宋容之書」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며, ‘퇴계의 해설’은 그 아래에 실려 있는 「答李宏仲書」·「答李平叔書」 등을 말한다.

그럼 ‘울곡의 그림’이란 무엇일까? 「위학지방도」는 『栗谷集』에는 보이지 않지만, 尹拯의 『明齋遺稿』와 金榘의 『厚齋集』 등에 栗谷이 그린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⁴⁾ 하지만 宋時烈은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 그림이 울곡의 저작이라는 주장에 대해 불신하는 견해를 가졌다. 이에 비해 윤증·김간·朴世采 등은 여러 가지 사실에 근거하여 울곡의 그림이라고 판단했다.⁵⁾

‘우계의 초록’은 成渾이 『주자대전』과 『주자어류』 중에서 학문하는 방법에 관한 것을 추려내어 『爲學之方』이라는 책으로 편찬한 것을 가리킨다. 이 책은 훗날 다른 사람이 ‘朱門旨訣’이라고 불렀으며, 이후 이 명칭으로 수용된 듯하다.⁶⁾ 윤증은 「위학지방도」에 있는 용어들을 주희의 여러 편지에서 확인한 뒤, 이 그림이 성혼의 초록에서 연유했다는 점과 제목이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이이와 성혼의 견해가 종합된 그림으로 보았다.⁷⁾

3) 徐命瑞, 『晚翁集』 卷3, 「爲學之方圖」. “學者學此而已 三者廢其一 非學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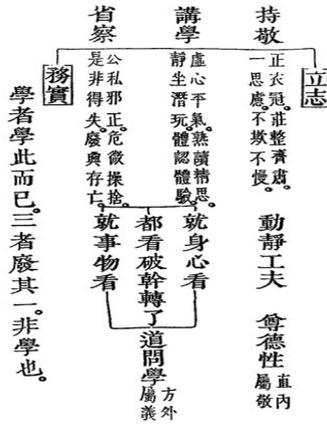
4) 최석기(2009), 「조선의 선비와 그들의 공부」, 『남명학』 제14집, 남명학연구원, 227면. 「위학지방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이 논문을 참조 바람.

5) 최석기(2009), 229~230면.

6) 광신환(2015), 9면.

7) 최석기(2009), 229면.

그러므로 『만옹집』에 실려 있는 「초학획일도」와 「위학지방도」는 서명서가 창안한 그림이 아니라 이전 학자들의 도설을 수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합재의 총도’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涵齋는 서명서의 6대조인 徐懈(1537~1559)⁸⁾의 호이다. 향후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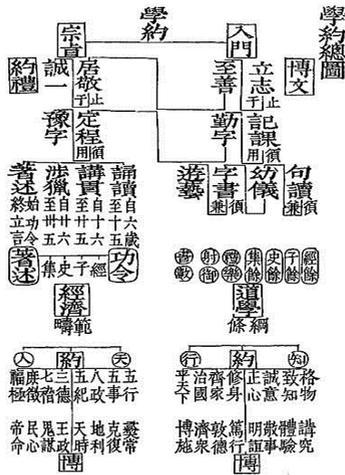
「爲學之方圖」

이와 달리 「학약도」는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일한 그림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서명서의 독창적인 自作圖라고 판단된다. 「학약도」는 第一과 第二의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第一은

8) 서해의 본관은 대구이며, 자는 挺之이다. 조부는 사헌부장령 徐彭召이며, 부친은 예조참의 徐固이다. 모친은 칠방 安嗣奎의 딸인 順興安氏이다. 퇴계 이황의 문하에서 수학했으며, 上舍 李中立과 절친했다. 23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했다. 대구의 龜巖書院에 제향되었다.

9) 서해의 문집인 『涵齋遺稿』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에 필사본(D03B-3086, 불분권 1책)으로 소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 문집에는 書, 祭文, 附錄(跋文·挽章·祭文·墓表)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총도와 관련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上·中·下の 세 단락으로 나뉘며, 第二는 道學과 經濟의 두 범주로 설정되어 있다. 아래의 「學約總圖」는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그림이다.



「學約總圖」

「學約總圖」가 요약하고 있는 「學約圖」의 전체적인 구도를 엄두에 두고 第一 上段의 첫 부분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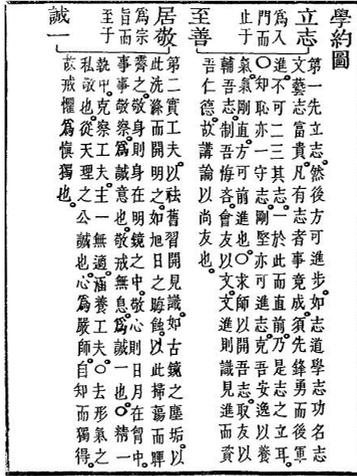
1) 학문의 入門과 宗旨: 「學約圖」 第一 上段

「학약도」의 第一 上段은 入門과 宗旨로 대별된다. 入門은 공부하는 사람이 학문에 들어서는 첫 출발점으로 뜻을 세움(立志)에서 시작되며, 그 뜻이 지향하는 목표는 지극히 훌륭한 경지(至善)에 그치는 것이다.¹⁰⁾ 敬에 거하는 것(居敬)으로 宗旨를 삼아 참되고 한결같은 경지(誠

一)에 이르기를 기약한다.¹¹⁾

이와 같은 입문과 종지의 설정은 명말청초의 학자인 桴亭 陸世儀(1611~1672)가 편찬한 『思辨錄』¹²⁾ 권2의 立志類와 居敬類에 근원하고 있으며, 해설의 상당 부분이 『사변록』에서 인용하고 있다.¹³⁾ 第一下段의 ‘誦讀’ 부분에서 “명나라 유학자 陸桴亭의 『사변록』은 종신토록 외우며 모범을 삼을 만하다.”라고 밝히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학약도」의 학문 체계는 『사변록』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파악된다.

-
- 10) 이것에 대한 해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第一 先立志然後 方可進步 如志道學 志功名 志文藝 志富貴 凡有志者 事竟成 須先鋒勇而後軍進 不可二三其志 一於此而直前 乃是志之立耳 ○知恥亦一守志 剛堅亦可進志 克吾安逸以養氣 氣剛直 方可前進也 ○求師以開吾志 取友以輔吾志 制吾侮吝 會友以文 文進則識見進而資吾仁德 故講論以尚友也”
- 11) 이것에 대한 해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第二 實工夫 以祛舊習開見識 如古鏡之塵垢 以此洗滌而開明之 如旭日之晦蝕 以此掃蕩而暉霽之 敬身則身在明鏡之中 敬心則日月在胸中 事事敬察 爲誠意也 敬戒無息 爲誠一也 ○精一執中 克察工夫 主一無適 涵養工夫 ○去形氣之私 敬也 從天理之公 誠也 心爲嚴師 自知而獨得 故戒懼爲慎獨也”
- 12) 『사변록』은 육세이가 1637년부터 1661년까지 24년간에 걸쳐 독서하고 사색하는 가운데 터득한 내용을 기록한 저술로, 총 40여 권이었다고 한다. 이후에 체제를 정비하고 내용을 산정하여 『思辨錄輯要』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으며, 前集 22권과 後集 13권으로 나뉘었다. 전집은 小學·大學·立志·居敬·格致·誠正·修齊·治平等 八類, 후집은 天道·人道·諸儒·異學·經子·史籍 등 六類로 구성되어 있다.
- 13) 예를 들자면, 道學·功名·文藝·富貴 등 어떤 일에 뜻을 세우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나, 전쟁에서 先鋒이 용감하게 돌진해야 後軍이 나아갈 수 있다는 비유, 부끄러움을 알면 뜻을 지킬 수 있다는 설명 등은 『사변록』의 내용에서 인용한 것이다.



「學約圖」第一 上段

2) 日課의 실천과 점검: 「學約圖」第一 中段

「학약도」의 第一 中段은 날마다 일과의 功過를 기록하는 것으로, ‘勤’字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변록』에는 이와 같은 일과의 생활을 점검하는 항목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육세의가 袁黃의 『功過格』을 실천한 일과 劉宗周를 존송하여 『人譜』에 영향을 받은 점¹⁴⁾을 생각할 때, 이 역시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하루를 10등분으로 나눈 후 시간별로 해야 할 일을 적시한 것은 서명서의 견해를 드러낸 부분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그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安鼎福(1721~1791)의 『下學指南』 「日用」과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금 뒤 시기의 尹最植

14) 吳震(2016), 281~367면 참조.

(1815~1874)의 『日用指訣』 및 崔東翼(1868~1912)의 「齋居日用三十五首」와도 같은 형식이다. 다만 서명서는 하루를 10등분으로 나눈 것에 비해 안정복과 윤최식은 12시각에 따른 지침을 세웠으며, 최동익은 새벽에서 저녁까지 해야 할 일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20개가량 뽑은 점이 다르다.¹⁵⁾

시간	해야 할 일
鷄鳴	寤而潛養心神 朝所講 晝所事 念定頭緒
昧爽	窓曙誦樂 攝衣晨省 灑掃應對 服食使役
平朝	整衣梳洗 安坐誦前受音 講新受音 繙釋疑難
禺中	端精朗讀 心目依口 或有事物 應接整暇
朝食	侍食整序 老幼異饌 養則及幼 薦則及賤
食後	緩步詠歌 或鋤菜投壺 習禮習字 敘勞筋骨
晌午	看史讀書 或玩解詩文 凡事主敬 勿侮卑 勿遺微
午後	製述功令 或史斷經義疑經濟之文 ○更看侍長者
夕間	掃室蠲業 雖紛擾 必惕厲精神 收斂儀容 勿放過
夜深	記註小冊 昏定侍語 退而整寢 靜臥存養 切勿侵宵

또한 「학약도」에는 별도로 讀書·檢身·居家·推致의 네 항목을 설정하여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를 서술했다. 讀書할 적에는 多讀을 가장 경계해야 하며, 정밀하고 익숙하게 읽어야 한다¹⁶⁾고 했다. 檢身に 있어서는 남을 응접할 때 선하거나 악하거나 하는 것은 상대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은 체모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일에 대응할 때 옳고 그름은 이치에 있으므로 의로움을 따라 처리해야 한다¹⁷⁾고 했다. 居家

15) 정환희(2017), 64~69면 참조.

16) 徐命瑞, 『晚翁集』卷3, 「學約圖」. “讀書 安坐睜目 整冊斂襟 心念義 口折吐 端喉靜聲 句讀音釋 精切通融 最忌貪多務得 只要精約貫熟 亦勿晝夜損神”

17) 徐命瑞, 『晚翁集』卷3, 「學約圖」. “檢身 衣取掩體 而潔洗整束 食取充腹 而及時勿闕 接人善惡在他 己不失體 應事曲直在理 處之有義”

3) 학업의 단계와 학습 내용: 「學約圖」第一 下段

「학약도」의 第一 下段은 공부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할 시기별 학습 단계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의 전반적인 체계는 원나라 학자인 程端禮(1270~1345)의 「讀書分年日程」을 참조하고 육세의의 『사변록』에 바탕하여 절충하고 보완한 것으로 파악된다.²⁰⁾ 특히 8세 때는 이미 외물의 유혹에 끌리게 되므로 5세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과 학업의 단계를 10년 단위로 나누어 誦讀·講貫·涉獵 등으로 설정한 것은 『사변록』의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했다.

5세 때는 본격적인 학업에 들어서기 전 단계로, 句讀를 떼는 법을 배우고 어린아이의 범절을 익힌다. 육세의는 『소학』이 어린이가 읽기에 매우 번잡하기 때문에 자신이 별도로 『節韻幼儀』를 편찬했다고 했는데, 서명서는 이것을 본받아 古語에서 뽑고 운자를 맞추어 四編의 교재를 만들어 『소학』을 대신해 먼저 읽게 한다²¹⁾는 뜻을 밝혔다. 이것은 「학약도」 뒤에 부록되어 있는 經餘·子餘·史餘 등인데, 集餘는 일실되었다고 한다.

글씨를 익히는 字書로서는 周興嗣의 『千字文』을 趙孟頫와 智永의 해서본으로 익히는 것이 좋다²²⁾고 했는데, 이 역시 『사변록』의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傍祖인 徐居正(1420~1488)이 편찬한 『類습』은 여항의 풍속과 이두의 방언을 익힐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尹淳과 李匡師의 글씨체로 베껴서 관각한 후 읽고 쓰게 한다면 글자와 학문이 함께 진보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조금 성장한 후에는 顏眞卿과 柳公權의 方正한 글씨와 명나라 태조의 典重한 서체를 익히고 왕희지의 媚

20) 김상호(1995), 285~288면 참조.

21) 徐命瑞, 『晚翁集』 卷3, 「學約圖」. “小學之文艱澁 幼兒難讀 余抄古語屬韻 爲幼讀 凡四編 可代之先習”

22) 徐命瑞, 『晚翁集』 卷3, 「學約圖」. “俗尙周興嗣千字文 孟頫智永楷本可習”

麗한 필체로 운색한 다음 시대를 올라가 篆書와 隸書의 古雅한 글씨를 배우는 것으로 습자의 순서를 제시했다. 그리고 글씨와 함께 禮樂을 겸하여 익혀야 한다고 했다.²³⁾

육세의 15세 이전에는 기억력이 좋고 이해력이 부족하므로 6세부터 15세까지는 經史의 중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외우는 誦讀을 권장했고²⁴⁾, 16세부터 25세까지는 이해력이 좋고 기억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으며 의미를 탐구하는 講貫이 필요하다고 했다. 26세부터 35세까지는 독서의 범위를 확장하여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涉獵하는 단계로 설정했다.²⁵⁾

「학약도」는 이와 같은 학업의 단계를 따르되 『사변록』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독서의 대상과 방법을 제시했으며, 우리나라의 서적까지도 포함하여 독서 목록을 풍부하게 열거했다.

학업 단계	독서 목록
6~15세 誦讀	字書: 音韻及筆畫 古篆文 詩歌: 『詩經』 二南·關唐, 漢·魏·宋·明·東國小詩樂府 孝經: 取易曉 小學: 可熟讀 大學: 先正文後章句 ○連誦

23) 徐命瑞, 『晚翁集』 卷3, 「學約圖」. “吾傍祖四佳公著類合 閭巷俚習 吏文方言 便該可教 以尹白下李道甫體 繕寫印刻 使一讀一寫 兼進字學 數月運筆如飛 稍長授以顏柳之方正 洪武之典重 潤之以黃庭之媚麗 而溯以篆隸之古雅 禮樂不可斯須去身”

24) 陸世儀, 『思辨錄輯要』 卷1, 小學類. “凡人有記性有悟性 自十五以前 物欲未染 知識未開 則多記性少悟性 自十五以後 知識既開 物欲漸染 則多悟性少記性 故人凡有所當讀書 皆當自十五以前 使之熟讀 不但四書五經 卽如天文地理史學算學之類 皆有歌訣 皆須熟讀”

25) 陸世儀, 『思辨錄輯要』 卷4, 格致類. “自五歲至十五爲一節 十年誦讀 自十五歲至二十五爲一節 十年講貫 自二十五至三十五爲一節 十年涉獵 使學有漸次 書分緩急 則庶幾學者 可由此而程功 朝廷亦可因之而試士矣”

	<p>史略: 初卷或二卷 ○取精約 繼以少微通鑑 春秋: 先經 ○稍長 抄四傳要義 綱目: 先綱 ○取王衡綱鑑 以承上接史斷尤切 詩經: 先易讀 有關風教 ○連誦 太極圖說·西銘: 兼心經聖學十圖 ○連誦 論語: 正文 ○抄反復文章義理 連誦 書經: 正文 ○文理篇法勝者 可連誦 孟子: 正文 ○文章四法兼者 可連誦 中庸: 正文 ○庸學經一章及序 連誦 周易: 正文 ○否泰咸恒二濟先讀 連誦 戴禮: 以類篇抄 讀誦 周禮: 取柯尙本 儀禮: 取大經 家禮: 正文 ○旁攷沙溪備要 古詩: 離騷選賦取典雅 陶杜唐宋佳作 連誦 古文: 左國輯選 班馬韓柳歐曾抄 ○程朱抄文 時文: 詩賦表 肅廟前后各數百 疑義策論 古今名作各數十 連誦 外家: 管楊老莊素問參同靈樞錦囊法華金剛楞嚴孫吳 不可不抄 讀 類集: 事文類聚彙語淵鑑類函</p>
<p>16~25세 講貫</p>	<p>四書六經: 大全並小註 或問可抄筭 性理諸書: 大全並小註 兼宋明東儒筭義 字彙: 六書正論妙 五車字典皆可 史記: 綱目資治秋繁本末互考 抄成一秩 古詩文: 班馬左傳騷莊歷代選文選詩 亦可 時文: 唐宋本朝 類彙成秩 須精備 類集: 文獻通考大學衍義古今世說名臣錄東文獻文集館閣名作 班馬以下全史 漢以下叢書 管莊以下文集 稗史以下傳記 亦可通看 而不可浸淫不返 擇學識經濟以助正學 或類排彙抄 無所不可 典禮: 歷代六典六禮及禮樂誌東典律 經濟: 天文地誌農田水利河渠等書 最宜精覽 醫: 張景岳文叢雲林書藥 李時珍康熙本草 好 兵: 武備志等書 亦可究其法制 刑: 明律東典具氏通編無冤錄等</p>
<p>26~35세 涉獵</p>	<p>四書六經: 小大註義並箋疏諸儒說 諸性理書: 圖書編并諸儒全書 二十二史: 全史並小大野史稗史 古詩文: 歷代全書全詩傳記</p>

時文: 功令諸家 各體旁授 繕整 類集: 古今文集 類書字通 撮 典禮: 取講貫而博古引證 抄採精約 用之則爲需應 藏之則爲立言 然當世行道者 貴知體忌變法 蓋體卽天理也 作用卽私心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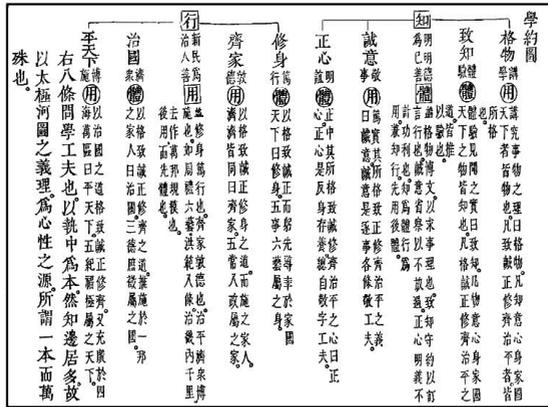
도표에서 밑줄을 긋고 짙게 표시한 書名이 우리나라의 서적들이다. 誦讀 단계에서는 詩歌의 東國 小詩·小樂府, 家禮의 金長生 『喪禮備要』, 性理書의 李滉 「聖學十圖」, 時文의 숙종 전후 시기 詩·賦·表 등이다. 講貫 단계는 性理諸書의 東儒 筭義, 類集의 東國 文獻·文集·館閣名作, 典禮의 東典律, 刑律의 東典과 具宅奎·具允明 부자가 증수한 『無冤錄』 등이다. 涉獵 단계에서는 다양한 서적을 광범위하게 읽는 시기이므로 우리나라의 서적을 지목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35세 이후는 덕이 높아지고 학업이 넓어지기 때문에 밖으로 확산하기 보다는 전적으로 經學에 의거해 배운 것을 실천하고 몸가짐을 단속하는 공부가 필요하다²⁶⁾고 했다. 또한 誦讀의 단계에서 힘이 부족한 사람이 講貫에 미치지 못하거나 講貫에 나아간 사람이 涉獵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 단계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했다.

「學約總圖」에는 涉獵 옆에 著述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에 ‘功令文에서 시작하고 立言으로 마친다(始功令終立言)’라고 小註를 써놓았지만, 해설에서는 달리 설명을 하지 않았다. 著述은 과거 시험을 위한 글짓기로부터 시작해서 후세에 남을 위대한 저술을 짓는 데에까지 기약하는 일이므로, 어떤 단계에 한정되지 않고 평생 동안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이해할 수 있다.

26) 徐命瑞, 『晚翁集』 卷3, 「學約圖」. “三十五以後 德崇業廣 涉獵收斂 不宜一向專治旁外 只從經學 踐履操守”

1) 道學의 강령과 조목: 「學約圖」 第二 上段



「學約圖」 第二 上段

「學約圖」 第二 上段의 道學은 『大學』의 明明德·新民 二綱領과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 등 八條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大學』의 三綱領 가운데 止於至善이 표기되지 않은 까닭은 일반적으로 止於至善은 별도의 강령이 아니라 明明德과 新民이 도달해야 할 목표로 이해하기 때문에 생략한 것으로 추정된다.

道學의 구도는 知와 行으로 나뉘어있다. 知는 明明德으로서 자기가 선해지도록 수행하는 일이며, 本體에 해당한다. 行은 新民으로서 다른 이들이 선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행동이며, 作用에 해당한다.

知에 속하는 조목은 格物·致知·誠意·正心이며, 行에 속하는 조목은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이다. 이 부분에서 특이한 점은 李滉의 「聖學十圖-第四大學圖」를 비롯한 조선의 학자들이 저술한 『大學』 圖說에서는 格物致知를 知로 보고 誠意·正心·修身을 行으로 파악하며, 齊家·治國·平天下는 行을 외부로 확장한 推行으로 이해하는 것에 비해,

「학약도」는 誠意와 正心마저도 知에 포함시키고 있다.

추론해보자면, 서명서는 格物부터 正心까지는 자신의 明德을 밝히는 내적 수양으로 보고, 修身에서 平天下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明德을 밝혀 주는 외적 시행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修身이란 내적 수양인 격물·치지·성의·정심을 통해 자신이 먼저 집안·국가·천하에 숭선 수범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그래서 修身을 개인적인 수양으로 해석하지 않고 외적 시행의 시작으로 파악했다.

이와 같은 구도 속에서, 격물은 강학을 통해 사물의 이치를 강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知·意·心·身·家·國·天下 등은 탐구의 대상인 사물이며, 致·誠·正·修·齊·治·平 등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행위이다. 치지는 건문의 실재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했다. 物·意·心·身·家·國·天下 등은 모두 알아야 할 대상이며, 格·誠·正·修·齊·治·平 등은 모두 미루어 체험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내적 체험인 치지가 본체가 되고 외적 탐구인 격물이 작용이 된다고 규정했다.

誠意는 일을 공경하게 행하는 것으로서, 格·致·正·修·齊·治·平 등의 뜻을 독실하게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誠意는 각각의 일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각 조목마다의 敬 공부〔各條敬工夫〕이다. 正心은 올바름을 밝히는 것으로서 格·致·誠·修·齊·治·平 등을 행할 적에 마음을 正中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正心은 자신에게 돌이켜 마음을 보존하고 함양하는 것이므로, 모두 敬字로부터 공부하는 것〔總自敬字工夫〕이다. 正心은 내적 수양이므로 본체이며, 성의는 외적 시행이므로 작용이다.

각 조목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설을 바탕으로, 「학약도」의 圖 아래에는 “격물은 널리 글을 통해 강구하여 사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치지는 간략한 것을 지켜 언행을 교정하는 것이다. 성의는 성찰하여 잘못을 저지르

지 않는 것이다. 정심은 올바름을 밝혀 공리를 따지지 않는 것이다. 知는 본체이며 行은 작용이니, 知·行을 겸하되 작용을 먼저하고 본체를 뒤로 한다.”²⁷⁾라고 각 조목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했다. 따라서 서명서는 명명덕의 조목에 대해, 격물(用)-치지(體)-성의(用)-정심(體)으로 이어지는 ‘先用後體’의 구조로 이해했다.

외적 실천인 新民의 강령에 속하는 修身은 독실하게 행하는 것으로서, 格·致·誠·正 등을 실천하여 자신이 먼저 家·國·天下 등에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齊家는 덕행을 돈독하게 행하는 것으로서, 格·致·誠·正·修身 등의 도리를 집안사람에게 시행하여 많은 사람이 모두 훌륭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수신은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며 제가는 집안 사람들에게 시행하는 것이므로, 수신이 본체가 되고 제가는 작용이다.

치국은 민중을 구제하는 것으로서, 格·致·誠·正·修·齊 등의 방도를 미루어 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평천하는 널리 시행하는 것으로서, 治國의 방도인 格·致·誠·正·修·齊 등을 온 세상에 충만하게 시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國은 天下에 비해 내적인 대상이므로, 치국이 본체이고 평천하가 작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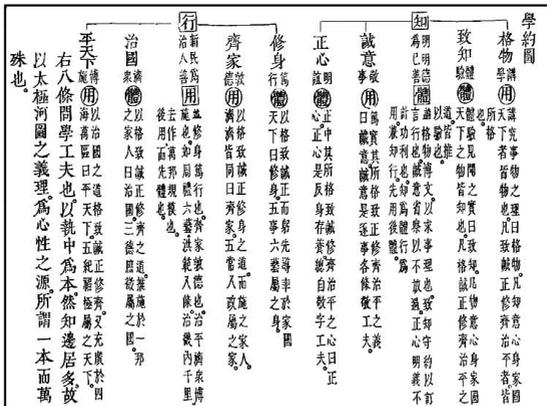
따라서 「학약도」의 ㉞ 아래에는 新民의 조목들에 대해 “修身은 篤行이며, 齊家是 敦德이며, 治國은 濟衆이며, 平天下는 博施이다. 『周禮』의 六藝와 『書經』 「洪範」의 八條는 畿內的 千里를 다스려 만방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 작용을 뒤로 하고 본체를 먼저 했다.”²⁸⁾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신민은 수신(體)-제가(用)-치국(體)-평천하(用)로 연결되는 ‘先體後用’의

27) 徐命瑞, 『晚翁集』 卷3, 「學約圖」. “蓋格物博文 以求事理也 致知守約 以訂言行也 誠意省察 以不放過 正心明義 不計功利也 知爲體 行爲用 兼知行 先用後體”

28) 徐命瑞, 『晚翁集』 卷3, 「學約圖」. “蓋修身篤行也 齊家敦德也 治平濟衆博施也 如周禮六藝洪範八條治畿內千里去作萬邦規模也 後用而先體也”

순서이다.

「학약도」 第二 上段의 끝부분에 “이상은 팔조목으로, 問學의 공부이며, 中庸을 잡는 것(執中)으로 근본을 삼는다. 그러나 지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太極圖說」·「河圖」의 義理로써 心性의 근원을 삼으니, 이른바 ‘하나의 근본이면서 만 가지 다른 측면을 가진다(一本而萬殊)’는 것이다.”²⁹⁾라고 전체 의미를 요약했다. 道學은 知·行의 두 범주를 가지고 있지만, 아래에서 살펴볼 經濟에 비하면 問學의 공부이며 지적인 측면이 많다고 이해했다. 그리고 하나의 근본인 一本으로부터 삼라만상의 다양성인 萬殊로 나아가는 연역적 순서로 파악했다.



「學約圖」 第二 上段

2) 經濟의 범주와 내용: 「學約圖」 第二 下段

「학약도」 第二 下段의 經濟는 학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

29) 徐命瑞, 『晚翁集』 卷3, 「學約圖」. “右八條目 問學工夫也 以執中爲本 然知邊居多 故以太極河圖之義理爲心性之源 所謂一本而萬殊也”

하는 일[經世濟民]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먼저 天과 人의 두 영역으로 대별되는데, 天道에 속하는 조목은 五行·五事·八政·五紀 등이다.

五行은 사물의 이치이자 윤리로서, 마음의 이치를 가리키며 하늘과 땅에 통한다고 정의했다. 그리고 父子는 天屬의 으뜸이며, 君臣은 人屬의 존장이며, 夫婦는 人을 天에 소속시키는 것이며, 兄弟는 天屬의 차례이며, 師友는 人屬의 차례이니, 이것이 天道의 순서라고 설명했다.

五事は 인성으로서 회복해야 할 것이며, 몸의 이치를 가리키며 사람과 사물에 통한다고 했다. 公·卿·大夫·士·庶 등은 지위이며, 다섯 감각 기관[五官]은 사람과 사물이 동일하게 품부받았지만 五德은 사람만이 온전하고 사물은 한쪽에 치우쳐 있다고 해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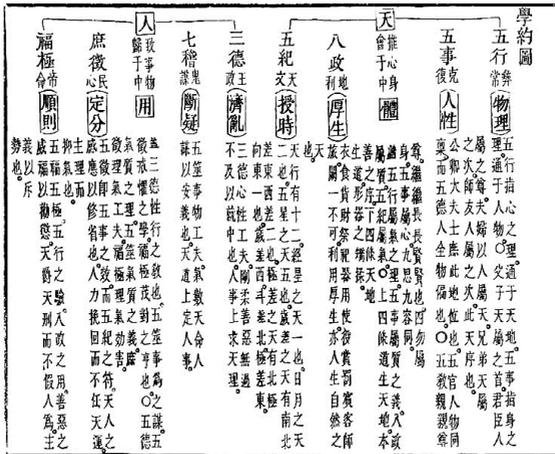
八政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地利로서, 衣·食·貨財·祭祀·器用·使役·賞罰·賓客·師旅 등은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이며, 利用厚生 역시 인생과 자연의 天道라고 이해했다. 五紀는 절기와 관련된 천문으로서, 하늘·별·해·달 등의 운행을 관측하는 것이다.

人道는 三德·七稽·庶徵·福極 등의 조목을 가진다. 그리고 「학약도」의 囚 옆에 “사물을 이루어 중도로 돌아간다.”라고 써서 人道가 지향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三德은 心性工夫로서, 剛·柔·善·惡 등에 있어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게 함으로써 中道로 나아가는 것이며, 人事에서 天理를 구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王政으로서 난리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함축해 표현했다.

七稽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 점술[五筮]은 事物工夫로서, 氣數·天命·人謀 등을 통해 의로움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것이며, 天道에 의해 人事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그리고 귀신에게 물어 의심을 결단하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庶徵은 민심을 말하며, 정해져 있는 분수[定

分)라고 표현했다. 福極은 상제의 명령이며, 법칙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상으로 「학약도」 제이 하단의 경제 범주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말 부분에서는 “이상 팔조목은 經濟의 효과이다. 중도를 세우는 것으로서 요체를 삼지만, 행적인 측면이 많다. 그러므로 『皇極經世書』·「洛書」의 形器로서 사물의 작용을 삼으니, 이른바 ‘만 가지 다른 측면을 가지지만 하나의 근본이다[萬殊而一本].’는 것이다.”³⁰⁾라고 전체적인 의미를 총괄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道學은 一本으로부터 萬殊로 나아가는 연역적 순서라고 한다면, 經濟는 개인적 차원의 中道를 붙잡는 범위를 넘어 나라와 천하에 중도를 세우는 것으로서 행적인 측면이 많으며, 삼라만상의 다양성으로부터 하나의 근본으로 귀결되어 가는 귀납적 순서를 가진다.



「學約圖」第二下

30) 徐命瑞, 『晚翁集』卷3, 「學約圖」. “右八條 經濟功用也 以建中爲要 然行邊居多 故以皇極洛書之形器爲事物之用 所謂萬殊而一本也”

4. 맺음말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한 후, 이 글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기로 한다. 서명서의 문집인 『만용집』 권3에는 세 개의 도설이 수록되어 있는데, 「초학획일도」와 「위학지방도」는 이전 학자들의 도설을 수용한 것이며, 「학약도」는 서명서의 독창적인 自作圖라고 판단된다.

「학약도」는 第一과 第二의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第一은 上·中·下의 세 단락으로 나뉘어있는데, 상단은 학문의 入門과 宗旨를 설명하고 있으며, 중단은 日課의 실천과 점검에 대한 지침을 말하고 있다. 하단은 공부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할 시기별 학습 단계와 내용을 제시했다. 第二는 道學과 經濟의 두 범주로 설정되어 있다. 第一이 학문의 목표를 설정한 후 日課 및 학업 단계별 수행 과제를 제시한 것이라면, 第二는 공부하는 사람이 성취해야 할 목표와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학약도」의 체제는 중국의 육세의가 저술한 『사변록』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그림과 해설은 서명서의 학문적 견해에 의해 독창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시 학자들의 실정에 맞는 독서 목록과 학습 방법을 제시했다. 그가 영조와 정조 두 조정에서 세자를 보필하는 직책을 맡은 학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약도」는 일개 학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넘어 후학들에게 학문의 표준을 제시하려는 의도에서 저술된 것이라고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이상의 내용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새로운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첫째, 영정조 대에 명말청초의 改過遷善 運動을 전개한 육세의 등이 조선의 학자들에게 끼친 영향은 어느 정도였으며, 그것이 구체적인 양상으로 드러난 경우가 있을까? 둘째, 조선후기, 특히

18세기의 서명서·안정복 등이 日課를 시간별로 설정하고 날마다 실천하며, 功過를 기록한 일은 자생적인 흐름이었을까? 아니면 袁黃의 『功過格』, 劉宗周의 『人譜』 등에 영향을 받은 결과였을까? 셋째, 程端禮의 『讀書分年日程』은 어느 정도 조선에 수용되었을까? 서명서의 학업 단계별 독서 목록과 실천 방법은 당시에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내용일까? 「학약도」의 독서목록과 유사한 자료가 있을까? 서원 또는 개인 문하에서 실시한 필독서와는 어느 정도 같고 다를까? 예를 들자면, 陶菴 李宰의 『檢身錄』과 『書社輪誦』과 「학약도」를 비교하면 어떨까? 등등.

위와 같이 이 글을 작성하는 동안 중국과 조선의 학술적 연관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로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 자료와 역량이 축적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부족하게나마 이 글은 서명서의 「학약도」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선구적 작업이라는 정도로 연구사적 의미를 매길 수 있으며, 해결되지 못한 문제의식들은 주제별로 나누어 연구주제를 구체화하고 심화시킬 수 있기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원전자료〉

徐命瑞, 『晚翁集』.
陸世儀, 『思辨錄輯要』.
朱熹, 『大學章句』.

〈연구논저〉

곽신환(2015), 「조선 유학의 「爲學之方」에 대한 수용과 이해」, 『동서철학연구』 제

77호, 한국동서철학회, 4~31면.

김상호(1995), 「晚翁 徐命瑞의 讀書段階論 比較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22집,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77~297면.

정환희(2017), 「조선 후기 사대부의 일일지침서 연구: 성리학적 공부론을 중심으로」, 『東方學』 제36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61~94면.

최석기(2009), 「조선의 선비와 그들의 공부」, 『남명학』 제14집, 남명학연구원, 2009, 203~254면.

吳震(2016), 「明末清初太倉地區的思想活動」, 『明末清初勸善運動思想研究』, 上海人民出版社.

Academic Processes and Systems Realized in 『Hakyakdo』 of Manong Seomyeongseo

Jun, Byung-Chol*

While existing studies have submitted rich output regarding academic achievements accomplished by scholars, there is a lack of studies with ‘discussions of processes’ that track by what reading lists and academic process those results were arrived at. This is becaus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with a focus on examinations of research subject theories but also because there is also a very small amount of material that reveals reading lists and academic processes in detail.

Based on this problem awareness, this article attempts to observe the reading lists and academic processes designed in 『Hakyakdo』 of Manong Seomyeongseo (1711~1795). 『Manongjip』 Book Three, which is an anthology of Seomyeongseo, contains three explanatory diagrams, 『Chohakhwekildo』 and 『Weehakjibangdo』 contain the illustrations of previous scholars, and 『Hakyakdo』 is an original work of Seomyeongseo.

The intention behind his authorship of 『Hakyakdo』 is assumed to be the presentation of systematic academic processes to those who study and through this, observations can be made of ideal academic goals and practice methods mapped out by Joseon scholars of the 18th century. 『Hakyakdo』 is divided into part one and part two. Part one is divided into the three paragraphs of first, second, and third and the first explains about academic beginnings and goals and the second speaks of guidelines for daily task practices and inspections. The third presented learning stages and contents that must be carried out by

*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E-mail: wooze@gnu.ac.kr

those who study by each period. Part two is established into the categories of ethics and economy. While part one established academic goals and presented performance tasks by each daily task and learning stage, part two presents goals and contents that people who study must accomplish.

Such systems of 「Hakyakdo」 were deeply influenced by 『Sabyunrokjibyo』 written by Lù Shìyí of Míng-mal-chungcho, China. However, pictures and explanations were originally put in based on the academic views of Seomyeongseo and presentations were made of reading lists and learning methods that suit the actual conditions of scholars at the time. If considerations are made of the fact that Seomyeongseo was a scholar in charge of supporting the crown prince during the two courts of Youngjo and Jeongjo, 「Hakyakdo」 can be considered to be significant, as more than the individual views of a mere scholar, but as work written under the intentions of presenting academic standards to younger students.

Key Words

Seomyeongseo, 『Manongjip』, 「Hakyakdo」, Lù Shìyí, 『Sabyunrokjibyo』, the reading lists, academic processes.

논문접수일: 2020. 12. 23, 심사완료일: 2021. 1. 20, 게재확정일: 2021. 2. 3

